

국보해설(國寶解說)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佛國寺 靑雲橋 白雲橋)

國寶 第 23號

울울(鬱鬱)한 숲으로 둘러싸인 불국사(佛國寺) 전정(前庭)에 들어서면 전방(前方)에 펼쳐있는 석단(石壇)이 시계(視界)를 막는다. 우리 키의 두곱이나 높은 축단석(築壇石)과 층단석(層단石)들이 여러 모양의 짜임으로 무겁고 담담하며 고른 방각(方角) 면면(面)을 이루고 있다. 그 돌 빛이 황백(黃白)이고 깎음질이 부드러우며 면면(面)의 수직수평위(垂直水平位)가 바른데다가 부분적(部分的)으로 자연거석(自然巨石)을 난적(亂賊)하여 단벽(壇壁)은 여유(餘裕)있게 등글려져 있다. 이 고대(高臺) 위에 자하문(紫霞門) 범영루(泛影樓) 안양문(安養門)이 솟아 있고 그 뒤로 다보(多寶) 석가탑(釋迦塔)의 정부(頂部) 상륜부(相輪部) 대웅전(大雄殿) 극락전(極樂殿)의 지붕이 올려다 보이기 때문에 이 석단(石壇) 석교(石橋)들은 전설세계(傳說世界)의 관문(關門)이나 가교(架橋)인 듯한 환각(幻覺)을 느끼게도 한다.

청운 백운양 교(靑雲 白雲兩 橋)를 올라가 자하문(紫霞門)을 들어서면 바른편 산(山) 밑의 다보탑(多寶塔)이 있다. 이 탑을 한바퀴 돌고 대웅전(大雄殿)과 석가탑(釋迦塔)을 돌아 극락전(極樂殿)으로 석단(石壇)을 훑어보며 돌아 나오면 이 석단 교(石壇 橋)가 다보탑(多寶塔) 하반부(下半部)와의 구조(構造)가비슷함을 알게 된다. 다보탑(多寶塔) 기단사방(基壇四方)의 보계(步階)는 말 할 것 없거니와 양주 탕주(陽住 撐柱)가 청 백운교(靑 白雲橋)의 석단(石壇)에도 원용(援用)되어 있다. 다만 이 석단하단(石壇下段)에서는 단면(斷面)이 넓기 때문에多數의 열주(列柱)로 되었고 높이에 적응(適應)해서 삼단(三段)의 방재(枋材)가 짜여져 있으나 이것은 말엽적 변기(末葉的 變技)에 불과(不過)할 것 같다.

다보탑 기단(多寶塔 基壇)위 사각주(四角柱) 위에는 첨차형공재(簷遮形拱材)가 이중(二重)으로 갑석(甲石)을 받고 있으며 갑석(甲石)은 사양(四陽)에서 양전(仰轉)되어 있다. 이 양전(仰轉)된 갑석(甲石)과 공재(拱材)는 백운교(白雲橋) (상단(上段))전석벽(前石壁)에도 교좌우(橋左右)에 세 개씩 주상부(柱上部)에서 돌출(突出)되어 탑갑석(塔甲石)에서와 같이 우각(隅角)이 양전(仰轉)한 판석(板石)을 받고 있다. 이 백운교 전벽(白雲橋 前壁)은 청운교(하단)(靑雲橋(下段))전벽(前壁)보다 얇기 때문에 중간방재(中間枋

材) 이단(二段)이 생략(省略)되고 일단(一段)만을 공재(拱材) 밑에 걸었으며 공재(拱材)가 길게나와 양전판석(仰轉板石)을 받고 있는 점(點),우(隅), 탕주(撐柱)의 고임 등(等)이 다보탑(多寶塔)의 경우와 흡사(恰似)하다. 그러므로 청(靑), 백운하(白雲下) 상단(上段)의 석단(石壇)은 상단(上段)이 적은 변화(變化)로 하단(下段)이 더 많은 변기(變技)로서 다보탑(多寶塔) 하반부(下半部)를 본 딴 것이라 하게으며 또 한가지 양교(兩橋) 상하(上下)에 이주(二柱)씩 배치(配置)한 난간석(欄干石)도 다보탑(多寶塔)의 경우와 같은 것이라할 수 있다. 우각(隅角)이 양전(仰轉)한 판석(板石)은 청운교하단상(靑雲橋下段上)위에도 있는 것이며 이 시대(時代) 석탑(石塔)의 옥개석(屋蓋石)에서도 전반(全般)으로 같은 양전(仰轉)은 볼 수 있는 바이나, 또 개석(蓋石)으로서의 개념(概念)은 모두가 상통(相通)되지만 다보탑(多寶塔)의 갑석(甲石)은 그 후래(後來)일 것인 양교(兩橋)의 판석(板石)과 함께 옥개(屋蓋)로서의 두꺼운 체적(體積)과 중량(重量), 급(急)한 물매를 해소(解消)한 데에 특이성(特異性)이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한바퀴 돌아보고 다시 느끼는 것은 경내(境內)의 목조건물(木造建物)에서는 부드러운 곡선(曲線), 석단(石壇), 석교(石橋)에서는 다보탑(多寶塔)에서 구사(驅使)된 조탑(造塔) 치석(治石)에 관(關)한 의장기법(意匠技法)의 연장(延長), 변화(變化), 확대(擴大), 즉(卽) 다보탑(多寶塔)적인 냄새이다. 석단(石壇)을 바라보고 있으면 경내(境內) 전역(全域)에서 그런 냄새가 풍겨오며 이와 관련(關聯)해서 생각키우는 것은 전북(全北) 익산(益山)의 미륵사지 다층 석탑(彌勒寺址 多層 石塔)이다.

이 거탑(巨塔)의 신부(身部)에는 불국사(佛國寺) 석단(石壇)에서와 같이 @차형(@遮形) 공재(拱材)는 없으나 열주(列柱)를 세우고 방재(枋材)를 가졌다는 점(點)에서 상통(相通)한다.

칠(七)세기 전반경(前半頃)(백제무왕대)(百濟武王大)의 것으로 인정(認定)되어 있는 것으로 미륵사지 석탑(彌勒寺址 石塔)과 경덕왕(經德王) 십년(十年)(칠오 일)(七五 一) 중창시(重創時)에 조성(造成)된 것으로 알려진 다보탑(多寶塔)과 석단(石壇), 석교(石橋) 사이에는 일세기이상(一世紀以上)의 세월(歲月)이 흘렀을 것이나 축석법(築石法)이 크게 상통(相通)함을 간과(看過)할 수 없다.

탑자(塔姿)의 외형(外形)이 목조건물(木造建物)에서 얻어진 것이고 이 청(靑), 백량교(百兩橋)와 석단(石壇)도 그러한 경로(經路)에서 파생(派生)한 것이라고 할 때 신라(新羅)가 백제(百濟)와 같이 발달(發達)된 건축기법(建築技法)을 바탕으로 하여 미륵사(彌勒寺)와의 시차(時差)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석단(石壇),교(橋)를 독자적(獨自的)으로 조성(造成)했을 가능성(可能性)도 없는 것은 아니나 목조건축기법(木造建築技法)을 수용(授用)한 탑조성(塔造成) 내지(乃至) 축조법(築造法)이 이미 미륵사(彌勒寺)에 뚜렷이 보이고 호상(互相) 일세기 이상(一世紀 以上)의 시차(時差)가 있는데다가 또 당대(當代)의 문물조류(文物潮流)가 백제(百濟)에서 신라(新羅)로 강(強)하게 유입(流入)되었던 추세(趨勢)로서 양자중(兩者中) 미륵사(彌勒寺) 선구(先驅), 또 밀접(密接)한 조형(造形)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지 않을까.

울울(蔚蔚)한 숲속에 옛 가람(伽藍)을 받고 있는 미륵사(彌勒寺)의 석단(石壇), 홍예석교(虹蜺石橋)와 언제나 충소리가 들리는 마을 앞 논 가운데 고립(孤立)해 있는 백제(百濟)의 거대(巨大)한 유구(遺構)를 번갈아 생각해 본다.